■ 2005~2006 프로농구 개인기록들 풍성

서장훈 통산 8000 득점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첫 대기록

문경은 3점슛 통산1,300개 돌파

25일 마침내 5개여월간 대장정을 마친 프로농구 2005~2006 시즌에는 눈에 띄는 개인 기록들이 풍성하게 쏟아졌다.

특히 득점과 어시스트, 3점슛, 블록슛 등 다양한 부분에서 1호 개인 기록이 봇물 터지듯 나와 국내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우선 '국보급 센터' 서장훈(서울 삼성)이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정규 경기에서 통산 8천 득점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1998~99시즌부터 지난해 시즌까지 모두 312경기에서 모두 7천425점(경기당 평균 23.8점)을 넣은 서장훈은 지난 1월14일 전주 KCC와 홈경기에서 18득점을 올리며 8천 득점을 돌파했다.

1998년 11월14일 대구 동양과 데뷔전에서 24점을 넣은 이후 8시즌 344경기 1만2천766분10초 동안 코트를 누빈 결과였다.

현재까지 개인 통산 7천 득점 이상을 올린 현역 선수로는 문경은(서울 SK·7천786점)이 유일해 당분간 8천 득점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선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인천 전자랜드에서 SK로 둥지를 옮긴 문경은은 지난 1월28일 안양 KT&G와 홈경기에서 3점슛 4개를 꽂아 넣으며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3점슛 통산 1천300개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토종 센터 김주성(원주 동부)과 '테크노 가드' 주희정(안양 KT&G) 역시 각각 블록슛과 어시스트 부분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며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성은 통산 450개의 블록슛을 성공, 전 KCC의 용병 재키 존스(443개)의 최다 블록슛 기록을 뛰어넘었고 주희정 역시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스 능력을 선보이며 프로농구 최초로 개인 통산 2천80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삼성, 5년만에 우승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강혁 'MVP'

서울 삼성이 2005~2006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판을 모두 휩쓸어 왕좌에 올랐다. 정규리그 2위 삼성은 지난 25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4차전에서 정규리그 1위팀 울산 모비스를 85-79로 꺾고 2001년 우승 이후 5년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았다.

챔피언결정전 내내 정확한 외곽슛과 볼 배분, 골밑 돌파로 다방면에서 활약한 강혁(9점)은 기자단 투표에서 70표 중 40표를 얻어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역대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부터 4차전을 모두 승리, 정상에 오른 팀은 삼성이 처음이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송원정보고 올 2관왕…무적 과시

경남여고 3대0 완파…춘계배구대회 이어 대통령배 우승

송원여중, 준우승에 그쳐

송원정보고가 올해 두 차례 열린 전국대회를 모두 휩쓸며 '여고 배구 최강'의 자리에 올라섰다.

송원정보고는 26일 대구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 40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연맹전 여고부 결승에서 경남여고를 세트스코어 3-0(25-16, 25-18, 25-16)으로 완파했다.

송원정보고는 이날 라이트 공격수 백목화와 이보라(이상 2년)의 화끈한 좌우 화력쇼와 센터 이보람(2년)의 천부적인 블로킹 등이 살아나며 손쉽게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보람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으며 공격상에는 이보라, 세터상에는 김은혜(1년·이상 송원정보고)가 뽑혔다.

이밖에 전날 울산여중을 2-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던 송원여중은 이날 강릉여중과의 대결에서 1-2로 석패,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송원정보고는 지난달 24일 열린 2006춘계 전국남여중·고배구연맹전에서도 우승컵을 차지했었다.

/최재호 기자lion@kwangju.co.kr

해머던지기 한국新 2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장복심(파주시청)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해머를 던지고 있다. 장복심은 이날 경기에서 57m88로 종전 56.82m보다 1m06을 더 던져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KIA 광주경기 29일 무료관람

"이번주 토요일은 야구가 무료랍니다"

KIA타이거즈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KIA-삼성전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폭스존 데이' 행사를 실시한다.

폭스존 데이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아울렛 쇼핑몰 '폭스존'에서 일반석 입장객에 한해 입장료를 모두 후원하는 행사다.

KIA는 이날 무등경기장 입구 매표소에서 입장권 1만3천매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하며 입장권을 소지한 자에 한해 야구 관람이 가능하다. 지정석은 이날 행사와 별도로 판매한다. /박진표 기자lucky@

스포츠 중계

27일(목)

▲메이저리그〈보스턴-클리블랜드〉(07 : 55·Xports)

▲대학농구대회 준결승전(13 : 50·MBC)

▲휘닉스파크 여자오픈골프 2R(14 : 00·MBC ESPN)

▲제25회 매경오픈 골프대회 1R(14 : 00·KBS2)

▲MBC배 대학농구 준결승(16 : 00·MBC ESPN)

▲프로야구〈롯데-두산〉(18 : 00·KBS SKY SPORTS), 〈KIA-SK〉(18 : 00·SBS 스포츠), 〈삼성-LG〉(18 : 30·MBC ESPN)

▲특집 일본대표팀 축구 평가전〈일본-에콰도르〉(19 : 00·Xports)

28일(금)

▲메이저리그〈콜로라도-필라델피아〉(03 : 55·Xports)

▲PGA투어 취리히 클래식 1R(05 : 00·SBS 스포츠)